

## 평화를 위한 종교계의 연합: HWPL과 함께하는 길

- 몽골에서 종교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 -

네르귀 사인보양

사인 너몽 사원 대스님, 몽골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인너몽 사원의 대스님인 사인보양 네르귀입니다. 오늘 2023 HWPL 지구촌 평화 지도자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발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몽골은 유구한 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칭기스칸의 팩스 몽고리카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가장 먼저 제정한 몽골법은 종교적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칭기스칸의 몽골법은 “종교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방해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대로 고백할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몽골은 이렇듯 종교적 관용이 있는 나라였고 그 기틀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사인너몽 사원은 1990년 날라이흐 지구에 세워졌습니다.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이제 사원은 확장되고 있으며 그 결과 종교 복합 센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승려 교육에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양한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찬드만이 에르데네"라는 종교 중등 학교를 설립했고 1998년에 사인너몽 사원 승려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사인너몽 사원이 몽골의 전통 불교와 현재를 결합한 종교 복합 센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작업했습니다. 사인너몽 복합 단지에는 종교 관습과 종교 사역; 중등 교육 및 종교 교육; 명상, 요가 및 심리 훈련; 인문학 및 창작예술 등으로 구성된 4개의 기본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사인너몽 사원도 선진종교문화를 계승하여 종교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HWPL의 종교연합사무실(종연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사인너몽 사원의 부대스님인 체렌도르즈 닌즈허럴 스님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7년간 종연사에 참석하여 다른 종교와 경서를 토대로 여러 의견을 나누며 소통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6월에는 HWPL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의 뜻은 경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inter-religious 활동들이 있지만, HWPL은 경서를 기준으로 타 종교와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팩스 몽골리카 때와 같이 종교적 관용과 소통의 문화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믿음만한 경서에 따라 신의 뜻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적인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인너몽 사원에서는 6월 20일 ‘몽골 종교인들의 연대’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몽골에 있는 다양한 종교인들은 하나로 모았습니다. 위 행사를 통해 몽골 종교인들은 몽골의 자랑스러운 역사 뒤에는 종교적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몽골 종교인들이 연대하여 평화적인 종교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HWPL의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IRPA)는 글로벌 시대이며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연대해야 하는 이 시대에 더욱 획기적인 평화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완전한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는 먼저는 종교지도자들이 평화의 일을 지지하고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지도자들이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류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IRPA인 것입니다.

저는 IRPA 불교수업을 7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연자로서 불교를 대표하여 강연하며 전 세계의 여러 종교인에게 불교 경서의 참뜻을 알릴 뿐 아니라 저 역시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어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 간 평화를 이루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HWPL은 이런 어려운 시대적, 평화적 과제를 해결하고 용기 있게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이 존경하고 또한 평화의 가족으로서 HWPL과 함께하고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HWPL 평화만국 회의에 초대해주시고 많은 평화적 가르침을 주신 HWPL 이만희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많은 세계 종교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종교인의 평화 사명을 일깨우며 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HWPL를 통해 만들어진 평화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을 넘어 몽골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어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사인너몽 사원은 HWPL의 적극적인 평화의 가족으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종교인의 신의 뜻을 깨닫고 그 평화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